

주부의 인터넷활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n the Housewives' Internet Usage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석 사 김 세 라

교 수 이 기 영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

Master : Kim, Se ra

Professor : Lee, Ki Young

〈목 차〉

I. 서 론	IV. 분석결과 및 논의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housewives' internet usage, examining empirically their internet usage motivation and activity, and to find the way to promote housewives' internet usag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housewives' internet usage motivation was composed of the motivation to make a good use of leisure by internet, self-developmental, practical, and children educational motivations. The mean score of self-developmental motivation was the highest in the internet users and that of child educational motivation was the highest in the non-internet users.

2) th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affected on the internet usage of housewives were age, internet related housing environment the perception of internet usefulness, internet usage of husband, the motivation to make a good use of leisure by internet, and children educational motivation.

I. 서론

21세기를 정보화사회라 한다. 정보화사회란 정보가 중심이 되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로서 농업사회,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의 국민생활정보화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2분의 1정도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컴퓨터가 가정기기의 하나로 될 만큼 가정생활에 침투해 들어오고 초고속정보망이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정보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에서 중심적인 축은 단연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이제 국가를 지배하고 경제·사회·문화를 변혁시키는 '생활'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21세기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Finkenberg, 1997)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일부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48.6%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각 부문이 상호연계된 네트워크사회인 정보화사회에서는 공공, 산업 부문의 정보화와 가정 부문의 정보화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사회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진다(이현아, 2001).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정보화란 곧 사회의 모든 개개인이 정보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정정보화는 성숙한 정보화사회의 필수과정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민PC', '주부인터넷교실' 등을 보급하며 주부의 정보화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며, 가정정보화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일원중 남편과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미 정보화사회의 필수도구인 인터넷을 익숙하게 접하고 있지만, 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일기획의 조사결과(2000년 5월)에 의하면 30세이상의 전업주부나 고졸이하의 블루칼라들이 중

심이 되는 '디지털 열등층'은 변화하는 사회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으나, 한편 디지털화에 적응하려는 자세도 갖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핵심구성원이자 디지털 소외층인 주부까지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곧 가정정보화, 곧 사회의 정보화를 이루는 것이며, 정보화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공적 차원에서의 정보화 실태 및 인식조사가 있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KNP¹⁾에서 주부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관련된 조사가 나와있긴 하나, 이는 조사의 주목적이 주부의 인터넷사용의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마케팅과 광고전략에 사용하려는, 즉 공급자측 관점에서 나온 목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의 측면에서, 정보화의 약자인 주부들의 인터넷활용동기와 그 결정요인을 실제적으로 조사해 봄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주부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주부의 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부들의 인터넷활용, 더 나아가 가정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인터넷활용실태

주부의 인터넷 이용률은 11.7%로 나타나 전체 이용률 48.6%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으나(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사용집단에 따른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율을 보면 주부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나(KNP, 2000) 주부가 인터넷의 주이용계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부 이용자의 주접속방법은 자택에서의 접속이 89.8%로 전체(36.9%)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접속방법

1) KNP(Korea Netizen Profile) Survey는 국내 인터넷사용자 조사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조사이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이루는 조사컨소시엄으로 1999년부터 1년에 2회(봄, 가을)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도 ISDN/ADSL과 같은 초고속 통신망이 32.8%로 전체 이용자에서의 초고속통신망 비율(15.9%)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KNP, 2000). 인터넷을 거의 매일 사용하는 이용자는 41.7%, 일주일에 2~4회 이용자는 35.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인터넷 이용비용에 있어 3-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주부 응답자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사용기간에 있어서는 6개월 미만의 사용기간을 가진 주부 응답자가 39.0%로 전체(12.3%)보다 상당히 높으며, 6개월-1년 미만의 응답자도 23.3%로 높게 나타났다(KNP, 2000). 주부 이용자들은 주로 쇼핑(52.7%), 육아정보(43.3%)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의 경우 실용적 목적의 이용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은행(25.3%)과 증권투자(39.9%)의 사용이 전체(16.2%/17.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KNP, 2000). 인터넷 이용계기에 있어서는 주부의 경우 '생활 정보 검색'(31.3%)이 계기인 경우의 비중이 높고, 특히 '자녀 교육'(22.5%)을 위한 계기의 비중이 전체(4.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자녀교육에 대한 주부의 높은 관심과 동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인터넷활용의 영향변수

1) 사회인구학적 변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2001년 3월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7~19세의 연령대가 가장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가운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터넷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 이상 학력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아 7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는 인터넷 이용률이 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 학력자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찬일(1996)의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을 받은 집단의 인터넷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인터넷이용률을 살펴보면, 주로 직장인과 대학생의 인터넷사용이 많지만, 초·중고생과 기타 직업에서도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KNP, 2000). 한편 250만원 이상 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65.4%,

150-250만원 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54.5%, 150만원 미만 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35.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이를 볼 때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의 이용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인터넷관련 변수

인터넷의 활용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비롯한 인터넷도구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인터넷을 얼마나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인터넷교육은 인터넷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컴퓨터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 86.4%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반해, 비이수자의 경우 28.1%만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교육과 컴퓨터이용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터넷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타가족원의 인터넷활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족수 3.3명 중(통계청, 1995)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2.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기술의 성공적인 수용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에서 얼마만큼의 만족감과 혜택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다(Banerjee & Colhar, 1994). 인터넷은 그 정보수용능력과 상호작용성을 생각할 때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혁신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데, 양찬일(1996)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의 적합성 즉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터넷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3) 인터넷활용 동기변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는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 욕구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동기 혹은 욕구파악은 행동에서 얻게 되는 만족감을 높이고 그 행동을 촉진·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인터넷 이용자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인터넷활용의 촉진에 있어 중요할 것이다. 전기홍(199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미디어의 이용동기를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정보추구 동기, 오

락적 동기, 습관적 동기, 새로움 추구 동기, 사회적 관계유지 동기 등의 5가지 이용동기로 정리하였으며, Korgaonkar와 Wolin의 연구(1999)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기는 크게 사회도피 동기, 정보 동기, 상호작용 통제 동기, 사회화 동기, 경제적 동기의 5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동기는 크게 분류하여 내재적(intrinsic) 동기와 외재적(extrinsic)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Davis와 Bagozzi 등(1992)에 의하면 외재적 동기는 외적인 보상과 같이 특정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발생하게 되는 반면, 내재적 동기는 행위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같은 것으로 행위 그 자체가 계속적인 강화물이 되어 행동을 이끌어낸다. 고재신(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업무나 학업과 같이 목적이 성과중심적인 계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며,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오래 사용한 사람들은 인터넷활동 자체의 즐거움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volainen(2000)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업무와 학업의 요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4) 인터넷활동 장애변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결과(2001)에 의하면, 인터넷 비사용이유에서 주부의 경우는 '필요성을 못느낌'이 4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이용방법 모름', '장비미비', '이용비용 부담'으로 나타남으로써 환경적인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크게 비사용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느린 통신 속도'가 54.9%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용비용의 부담', '정보검색의 어려움', '이용방법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한편 복잡성도 혁신의 수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의 사용방법의 어려움이 인터넷활동의 장애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양찬일(1996)의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방법에 있어서 복잡성을 더 높게 느낀 집단일수록 인터넷에 대한 더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주부의 인터넷 비사용자와 인터넷 사용자간에 사회인구학적 변수, 인터넷 관련변수, 인터넷활동 동기변수, 인터넷활동 장애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인터넷 비사용자와 인터넷 사용자간에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인터넷 비사용자와 인터넷 사용자간에 인터넷 관련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 인터넷 비사용자와 인터넷 사용자간에 인터넷활동 동기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4) 인터넷 비사용자와 인터넷 사용자간에 인터넷활동 장애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주부의 인터넷활동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도구의 구성

1) 인터넷활동 동기

인터넷활동 동기 척도는 매년 이루어지는 KNP 인터넷사용자조사(2000)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1점에서 5점까지 준 5점 리커트 척도의 22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해 5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표 1〉 참조). 요인 1은 여가선용 동기, 요인 2는 자기발전 동기라 하였으며, 요인 3은 실용적 동기, 요인 4는 자녀교육 동기 그리고 요인 5는 동조적 동기라 명명하였다. 요인별 고유치를 살펴보면 여가선용 동기의 값이 3.98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발전 동기, 실용적 동기, 자녀교육 동기, 동조적 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활동 장애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방법, 비용, 시간 등과 관련

〈표 1〉 인터넷활용 동기문항의 요인부하량과 요인별 문항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일상의 지루함과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83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78				
여가를 잘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ex. 음악감상, 게임, 영화감상)	.70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68				
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66				
폭넓게 친구를 사귄 수 있기 때문에	.59				
나의 재능과 솜씨를 발휘하기 위하여	.45				
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77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69			
자신감을 갖게 해 주므로		.69			
교양을 쌓기 위하여		.65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기 위하여		.61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56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0			
가계재무관리(ex. 주식투자, 은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67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66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ex. 이메일교환, 동호회, 동창회)			.60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54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48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ex. 가족홈페이지 운영, 가족간 이메일 교환)			.45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ex. 인터넷 자료수집)				.78	
꼭 내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76
고유치	3.98	3.60	2.64	1.33	1.30
전체변량 (%)	18.09	16.36	12	6.05	4.55
누적변량 (%)	18.09	34.35	46.35	52.5	57.05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1점에서 5점까지 준 5점 리커트 척도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방법적으로는 인터넷 조작의 어려움과 정보검색 방법의 어려움으로 나뉘어진다.

3) 인터넷 유용성 인식도

인터넷 사용자가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해 보고 난 후 인터넷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문항이며 구체적으로 정보습득,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상품 구입, 여가활용, 재테크, 학업이나 학습,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유용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두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별

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준 5점 리커트 형태로 7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on-line)에서는 인터넷 사용자 220명에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오프라인(off-line)에서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부모와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각 연령대별로 대상이 고루 표집되도록 유의적 표본추출방법을 하였으며, 질문지 총 350부가 배포되었고 이 중 248부(비사용

자:200부, 사용자:4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SAS 통계 프로그램의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t-test, Chi-square 검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경향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척도	총 문항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인터넷활용 동기	22	.905
인터넷활용 장애	4	.878
인터넷 유용성 인식도	7	.725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 분	빈도(%)	
		인터넷 비사용자	인터넷 사용자
연령	20-29세	8(4.0)	79(29.5)
	30-39세	77(38.7)	110(41.0)
	40-49세	92(46.2)	61(22.8)
	50세 이상	22(11.1)	18(6.7)
	계	199(100.0)	268(100.0)
	평균(세)	41.9	35.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8.5)	13(4.9)
	고졸	80(40.2)	90(33.6)
	전문대졸	16(8.0)	32(11.9)
	대졸 이상	86(43.2)	133(49.6)
	계	199(100.0)	268(100.0)
가족원 수	2인	7(3.5)	39(14.6)
	3인	29(14.5)	72(26.9)
	4인	110(55.0)	123(45.9)
	5인 이상	54(27.0)	34(12.7)
	계	200(100.0)	268(100.0)
	평균(명)	4.2	3.6
자녀수	1명 이하	29(14.7)	120(44.8)
	2명	128(65.0)	132(49.3)
	3명 이상	40(20.3)	16(6.0)
	계	197(100.0)	268(100.0)
	평균(명)	2.1	1.5
막내자녀 연령	5세 이하	36(18.3)	97(43.3)
	6-10세	33(16.8)	48(21.4)
	11-15	72(36.5)	29(13.0)
	16-20	35(17.8)	26(11.6)
	21세 이상	21(10.7)	24(10.7)
	계	197(100.0)	224(100.0)
	평균(세)	12.5	8.6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변수	구 분	빈도(%)	
		인터넷 비사용자	인터넷 사용자
부인의 직업	전업주부	132(66.7)	177(66.3)
	비전문직	27(13.6)	20(7.5)
	전문직	30(15.2)	55(20.6)
	자유직·대학생·기타	9(4.5)	15(5.6)
	계	198(100.0)	267(100.0)
남편의 직업	비전문직	61(31.6)	71(27.2)
	전문직	114(59.1)	163(62.5)
	자유직·대학생·기타	18(9.3)	27(10.3)
	계	193(100.0)	261(100.0)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10(5.1)	9(3.4)
	100-200만원 미만	51(25.9)	88(33.1)
	200-300만원 미만	58(29.4)	97(36.5)
	300-400만원 미만	32(16.2)	42(15.8)
	400만원 이상	46(23.4)	30(11.3)
	계	197(100.0)	266(100.0)
	평균(만원)	308(182.42)	258.96(131.3)
인터넷관련 주거환경	단독주택	45(22.6)	35(13.1)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48(24.1)	50(18.7)
	초고속통신망 미설치 아파트	43(21.6)	55(20.5)
	초고속통신망 설치 아파트	60(30.2)	127(47.4)
	계	196(98.5)	268(100.0)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인터넷 비사용자와 사용자간의 변수의 차이검증

1) 사회인구학적 변수

인터넷의 사용여부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연령에 있어 사용자(35.6세)가 비사용자(41.9세)보다 낮았는데, 이는 연령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새로운 변화나 기술에 적응하는 능력이 크고,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사용자의 월평균소득은 308.0만원으로서 사용자보다 많았다. 그러나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표

〈표 4〉 연령·월평균소득의 차이검증

	비사용자	사용자	t 값
	평균(표준편차)		
연령	41.9(6.9)	35.6(8.2)	-9.05***
월평균소득	308.0(182.4)	259.0(131.3)	-3.29**

** p<.01, *** p<.001

5)와 같이 모든 연령대에서 비사용자와 사용자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사용자와 사용자간에 월평균소득의 차이는 소득자체의 차이보다 연령의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표 6〉과 같이 비사용자는 고졸

〈표 5〉 연령대에 따른 월평균소득의 차이검증

	비사용자		사용자		t 값
	빈도(명)	평균(표준편차)	빈도(명)	평균(표준편차)	
20-29세	5	230.0(160.5)	77	209.1(81.8)	-0.52
30-39세	69	267.4(124.5)	110	260.9(103.5)	-0.36
40-49세	98	294.9(128.9)	61	280.3(119.1)	-0.73
50세 이상	28	333.9(133.4)	18	288.9(107.9)	-1.26

〈표 6〉 교육수준·부인의 직업·남편의 직업·인터넷 관련 주거환경의 차이검증

		빈도(%)			χ ² 값
		비사용자	사용자	합계	
교육수준	고졸 이하	97(48.7)	103(38.4)	200(42.8)	4.96*
	전문대졸 이상	102(51.3)	165(61.6)	267(57.2)	
부인의 직업	전업주부	132(66.7)	177(66.3)	309(66.5)	6.31*
	비전문직	27(13.6)	20(7.5)	47(10.1)	
	전문직	39(19.7)	70(26.2)	109(23.4)	
남편의 직업	비전문직	61(31.6)	71(27.2)	132(29.1)	1.04
	전문직	132(68.4)	190(72.8)	322(70.9)	
인터넷 관련 주거환경	단독주택	45(22.6)	35(13.1)	80(17.1)	17.96***
	빌라	48(24.1)	50(18.7)	98(21.0)	
	초고속통신망 미설치 아파트	43(21.6)	55(20.5)	98(21.0)	
	초고속통신망 설치 아파트	60(30.2)	127(47.4)	187(40.0)	

* p<.05, *** p<.001

※ 전문직에는 자유직, 대학생, 기타를 포함하였다.

이하가 더 많았고, 사용자는 전문대졸 이상이 더 많이 나타나서 사용자의 교육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는 인터넷활용능력이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인의 직업에서는 사용자는 전문직이 많은 반면 비사용자는 비전문직이 더 많이 나타났다. 전문직의 경우 직업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비전문직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관련 주거환경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약 47.4%가 초고속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거주자라는 것을 볼 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주거환경이 인터넷의 사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터넷관련 변수

인터넷교육의 수강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경우 인터넷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비사용자보다 많이 나타난 반면, 비사용자의 경우 인터넷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7〉참조). 수용자가 혁신을 어느정도 시험해 볼 수 있는가를 뜻하는 시험가능성(triability)이 혁신의 수용에 영향을 주며, 조금이라도 시험이 가능한 혁신이 그렇지 못한 혁신보다 더 빨리 채택되는 경향이 있었다(Rogers, 1976)는 것을 볼

〈표 7〉 인터넷교육 수강여부·타가족원의 인터넷활용여부의 차이검증

문항	구분	빈도(%)			χ²값
		비사용자	사용자	합계	
인터넷교육	받은 적 없다	166(83.0)	191(71.3)	357(76.3)	10.70**
	받은 적 있다	33(16.5)	77(28.7)	110(23.5)	
남편의 인터넷활용	한다	122(61.0)	234(87.3)	356(76.1)	43.56***
	안한다	78(39.0)	34(12.7)	112(23.9)	
자녀의 인터넷활용	한다	157(78.5)	149(63.7)	306(70.5)	11.40***
	안한다	43(21.5)	85(36.3)	128(29.5)	

** p<.01, *** p < .001

때, 인터넷을 접해보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인터넷교육과 같은 기회가 주부의 인터넷활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타가족원의 인터넷활용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사용자(61.0%)보다 사용자(87.3%)의 남편이, 자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63.7%)보다 비사용자(78.5%)의 자녀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연령이 되어야 하는데, 비사용자의 연령(41.9세)이 사용자(35.6세)보다 높으므로 비사용자의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비사용자의 막내자녀의 평균연령은 12.5세인 데 반해 사용자의 경우 8.6세로 나타났다.

인터넷 유용성 인식도에 있어서는 〈표 8〉과 같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동기에서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렇게 지각된 인터넷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 활용의 동기와 인터넷 활용의 제반환경을 갖

출 동기를 증가시킴으로 인터넷의 사용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하겠다.

3) 인터넷활용 동기변수

여가선용 동기와 자기발전 동기, 실용적 동기, 자녀교육 동기 모두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동기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자녀교육 동기를 제외하고 여가선용 동기, 자기발전 동기, 실용적 동기 모두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9〉참조). 한편 동조적 동기는 비사용자와 사용자 모두 서로 비슷했으며 점수가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주부들이 단순히 남들이 하기 때문에서라기보다는 인터넷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용자의 경우 자기발전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자기발전이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욕구가 높을 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비사용집단에서 자녀교육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

〈표 9〉 요인 및 하위문항의 점수

〈표 8〉 인터넷 유용성 인식도의 차이검증

문항	평균/빈도		t 값
	비사용자	사용자	
인터넷 유용성 인식도	3.85	4.19	5.60***

*** p<.001

요인 및 하위문항	평균		t 값
	비사용자	사용자	
여가선용 동기	2.55	3.23	9.17***
자기발전 동기	3.55	3.85	5.05***
실용적 동기	2.79	3.10	4.35***
자녀교육 동기	3.85	3.64	-2.07*

* p <.01, *** p < .001

로써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도 이것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자녀교육동기가 높은 주부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해 보았을 때 주부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자녀교육보다는 오히려 주부들의 여가를 선용하는 데에 더 유익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4) 인터넷활용 장애변수

〈표 10〉과 같이 인터넷 조作的 어려움과 정보검색 방법의 어려움, 그리고 이 두가지를 합한 방법적 부담에 있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신비용의 부담과 시간의 부담은 인터넷 비사용자와 인터넷 사용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주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통신비용이나 시간의 확보보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지식과 방법의 획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인터넷활용 장애변수의 차이검증

문항	평균		t값
	비사용자	사용자	
방법적 부담	2.80	2.49	-3.30**
인터넷 조作的 어려움	2.77	2.45	-3.24**
정보검색 방법의 어려움	2.85	2.54	-3.09**
통신비용의 부담	3.45	3.47	0.25
시간부담	3.47	3.44	-0.27

* p < .01, ** p < .05, *** p < .001

3. 인터넷활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주부의 인터넷활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확률을 구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test와 Chi-square 검증에서 유의미했던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이 중 부인의 직업에서는 주부를 가변수로 하여 전문직과 비전

문직으로 나누었으며, 인터넷 관련 주거환경에서는 초고속통신망 설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여 단독주택, 빌라, 초고속통신망 미설치 아파트를 합하였다. 모형에 대한 Chi-square 값은 149.652로서 유의수준 0.0001에서 유의하므로 이 모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독립변수들의 독립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인터넷 관련 주거환경, 남편의 인터넷 사용여부, 여가선용 동기, 인터넷 유용성 인식도 등이고,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자녀교육 동기, 방법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 독립변수의 범주별로 보면,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수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초고속통신망이 설치된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인터넷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령이 낮을수록 즉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 빠를수록, 또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적 환경 및 주거환경이 갖추어져 있을 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관련변수에서는 남편이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인터넷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가족원의 인터넷활용여부가 인터넷 사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인터넷활용 동기 특성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여가선용 동기가 높을수록, 자녀교육 동기가 낮을수록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목적보다도 인터넷을 통해 여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수록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학원인터넷교육의 수강여부에 따라 주부의 인터넷사용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주부의 인터넷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접해보고 활용해 볼 수 있는 학원인

〈표 11〉 인터넷활용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문 항	B	S.E.	
사회인구학적 변수	연령	-0.092***	1.849	
	가족수	-0.304	0.025	
	교육수준	0.034	0.167	
	부인의 직업	비전문직	-0.634	0.427
		전문직	0.028	0.350
	월평균 가계소득	-0.002	0.001	
	인터넷 관련 주거환경	0.601*	0.280	
인터넷 관련변수	인터넷교육 수강여부	0.212	0.291	
	남편의 인터넷활용 여부	0.960**	0.353	
	자녀의 인터넷활용 여부	0.714	0.413	
	인터넷 유용성 인식도	1.007***	0.252	
인터넷활용 동기변수	여가선용 동기	1.112***	0.250	
	자기발전 동기	0.170	0.279	
	실용적 동기	-0.382	0.261	
	자녀교육 동기	-0.641***	0.152	
인터넷활용 장애변수	방법적 부담	0.009	0.155	
-2 LOG Likelihood의 ²값		149.652***		

* p <.05, ** p <.01, *** p <.001

터넷교육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인터넷활용 장애변수에서 인터넷 조작의 어려움, 정보 검색 방법의 어려움과 같은 방법적 부담이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집단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주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통신비용이나 시간의 확보보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지식과 방법의 획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인터넷사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보면 남편이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인터넷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여가선용 동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교육 동기는 낮을수록 인터넷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의 인터넷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주부의 인터넷활용 자체만이 아니라 가정내 정보인프라의 확충, 가족 구성원 상호간 이용방법 전파 등 남편과 자녀 등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터넷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넷의 유

용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홍보와 주부들이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교육적, 실제적인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주부들이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용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정보화정책은 온 국민이 정보, 곧 인터넷을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활용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인터넷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부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및 가정의 중심이므로 주부의 인터넷활용이 사회의 정보화의 열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부의 인터넷활용과 관련한 더 많은 조사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교육의 여부에 따른 인

터넷활용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터넷교육을 받은 경우에 실제로 주부의 인터넷활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봄으로써, 실제적으로 주부들의 인터넷활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인터넷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위와 같은 제한점이 있지만 이 연구는 현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주부들의 인터넷활용 동기와 그 결정요인을 알아본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주부의 인터넷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인터넷활용과 관련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선미(1994). 가정정보화와 여성 삶의 변화. 포럼21. 한백연구재단.
- 2) 고재신(1999). 인터넷 상에서의 소비자 탐색행위에 관한 연구; 동기와 관여도에 의한 소비자분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공선진·강선미(1996). 정보사회와 여성의 생활세계. 포럼21. 한백연구재단.
- 4) 금기현(1999). 전자·정보통신 전문가 집단의 인터넷 전자신문(ET news) 이용행태 및 동기 조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문조(1998). 정보화와 여성의 지위변화. 아시아여성연구 37.
- 6) 김행근(1999). 소비자의 인터넷 유료 정보/서비스의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혜양(1997). 인터넷 활용이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찬원(2000). 인터넷 사용행동에 관한 이중경로모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성영신·박은아·이성수(1998). 컴퓨터 사용욕구와 심리적 경험. 소비자학 연구 9(1).
- 10) 신종철·송창석(2000). 인터넷 쇼핑의 수용에 관한 연구; 혁신의 특성과 수용 장벽을 중심으로. 한국마케팅저널 2(2).
- 11) 안철현(2000). 인터넷 경매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인식차이와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양찬일(1996). 인터넷의 확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오택섭(1995). 뉴미디어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나남.
- 14) 윤정로(1999). 한국의 정보화와 전업주부. 정보화저널 6(2).
- 15) 이선형(2001).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이용수(1999). 인터넷 이용자의 현실지각에 관한 연구; 대학생의 이용동기, 활동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이현아(2001). 가정정보화가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사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1).
- 18) 이현아(2001).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19) 인터넷매트릭스 (1999). 제2차 인터넷 센서스 조사.
- 20) 전기홍(1998). 모체수용자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와 동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조 형(1992). 정보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정보화로 가는 길.
- 22) 채육희(1999). 가정정보화와 가정관리학의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 23) 최재영(1991). 미디어 이용과 충족과정 연구; 대학생의 텔레비전 이용 유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한지연(2000).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동기 및 관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전자상거래조사통계보고서.
- 27) 통계청(1996). 도시가계연보.
- 28) 한국전산원(2000). 한국인터넷백서.
- 29) Arvidsson, A.(2000). "The therapy of consumption motivation research and the new Italian housewife 1958-62." *Journal of Material Culture* 5(3), 251-274.
- 30) Armstrong, L., Phillips, J.G., and Saling, L.L. (2000). "Potential determinants of heavier internet usag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53(4), 537-550.
- 31) Banerjee, S., and Colhar, D.Y.(1994).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haracteristics of users and nonusers." *Information & Management* 26, 67.
- 32) Finkenber, M.E.(1997). "The Internet in kinesiology and physical education." *QUEST* 49(3), 327-332.
- 33) Korgaonkar, P.K., and Wolin, L.D.(1999). "A Multivariate Analysis of Web Usage."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39(2), 53-68.
- 34) Lai, V.S., and Guynes, J.L.(1994). "A model of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adoption in U. S. corporations." *Information & Management* 26, 81.
- 35) Robinson, J.P., Kestnbaum, M., Neustadtl, A., and Alvarez, A.(2000). "Mass media use and social life among Internet user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8(4), 490-501.
- 36) Savolainen, R.(2000). "Embarking on the Internet; what motivates people?" *ASLIB Proceedings* 52 (5), 185-193.
- 37) Sheth, J.N., and Ram, S.(1987). "Bringing Innovation to Market." John Wiley & Sons. Inc., 67-95.
- 38) Teo, T.S.H., Lim, V.K.G., and Lai, R.Y.C.(1999).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Internet usage." *Omega-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27(1), 25-37.
- 38) Wang, and Nelson(1998). "Measuring Who's on Web is Still Difficult Business." *Internet World*. February 9.